



2018년 한국여가문화학회 3월 콜로키움

2018.3.20.화 18:30

고려대학교, 구법학관 B104

# 신기술 시대의 과로위험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 목차

## 문제 제기

전제: 과로사회라는 맥락, 과로위험의 실태

노동 특성의 변화: 시공간 차원에서

새로운 현상 ① 업무의 일상 침투

② 노동자의 탈노동자화

③ 소작농화

시간권리를 위한 과제들

# 신기술의 형상들

알파고(AlphaGo)

페퍼(PEPPER)

로스(ROSS)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er)

스피드 팩토리(Speed Factory)

비트코인(Bit Coin)

왓슨(Watson for oncology)

워드렌즈(Word Lens)

질 왓슨(Jill Watson)

아마존고(Amazon Go)

웨이모(Waymo)

슈팅스타(Shooting Star)

# 새로운 형태의 노동들

배달앱 알바

우버 노동

플랫폼 노동

클라우드 워크

긱 워크

호출 노동

SNS 업무지시, 돌발 노동

온 디멘드 노동

스마트 워크 & 모바일 워크

디지털 특고

독립 노동(independent work)


## 문제 제기

자율성, 시간 활용, 선택성, 독립성, 자발성 id가 덧씌워짐  
고용(Employment) 관점에 치우친 일자리 담론  
(유토피아 vs 디스토피아) 이분법적 구분  
탈맥락적인 유형 분류론 또는 제도 개선론

- ~ 노동 과정에의 기술 효과에 대한 논의 부재
- ~ 신기술이 현재의 과로문화와 접합되는 지점들 간과
- ~ 노동의 권리를 벗겨내는 논리들/지점들 난무

# 전제: 과로사회, 과로위험의 실태

## #1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7중 추돌사고 (2017.7.9.)



하루 16시간 운전

YTN

### 사고 버스기사 근무 일지

5일(수)	15시간 30분 근무
6일(목)	18시간 15분 근무
7일(금)	휴무
8일(토)	18시간 9분 근무
9일(일)	<b>추돌 사고</b> 50대 부부 사망, 10여 명 부상

# 전제: 과로사회, 과로위험의 실태

## #2 김포 시내버스 횡단보도 사상사고 (2017.11.7.)





## 전제: 과로사회, 과로위험의 실태

두 사건은 우연인가? 예외적인 사고인가?

우연이더라도 특정 장소(업종)에서의 사건 반복은 필연일 확률

필연일 확률을 높인 **구조적** 특성은 무엇인가?



# 전제: 과로사회, 과로위험의 실태

## + 근로시간특례제

- ~ 운수, 보건, 사회복지, 우편집배, 방송 등 26개 업종 (기존)
- ~ 취업자의 **절반** 가량
- ~ 무제한 이용권이라 불릴 정도로 장시간 노동을 **방치**한 제도

## 워라벨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노동 현실: 업계의 은어들

따당, 태움, 깔때기 현상, 견배, 디졸브, 클로프닝, 실적=인격  
크런치모드, 오징어잡이배, 일주일 두 번 출근,

cf. 특례 축소: 제도 차원의 시간 민주화를 위한 첫걸음

☞ 제도와 현실의 **간극** 메꾸기, **시간 양극화**의 문제들 고민하기

## 전제: 과로사회, 과로위험의 실태

넓은 제도의 문제 이외에도

- + 여전한 근면 문화
- + 눈치 봐야 하는 조직 분위기
- + 낮은 노조 조직율
- + 열악한 임금체계
- + 부재한 시간 권리
- + 신뢰도 낮은 제도정책
  
- + 강도 높은 실적 압박
- + 일상화된 구조조정  
등이 중첩되어



~ 장시간 노동은 여전히 재생산! 과로위험이 상존!

# 전제: 과로사회, 과로위험의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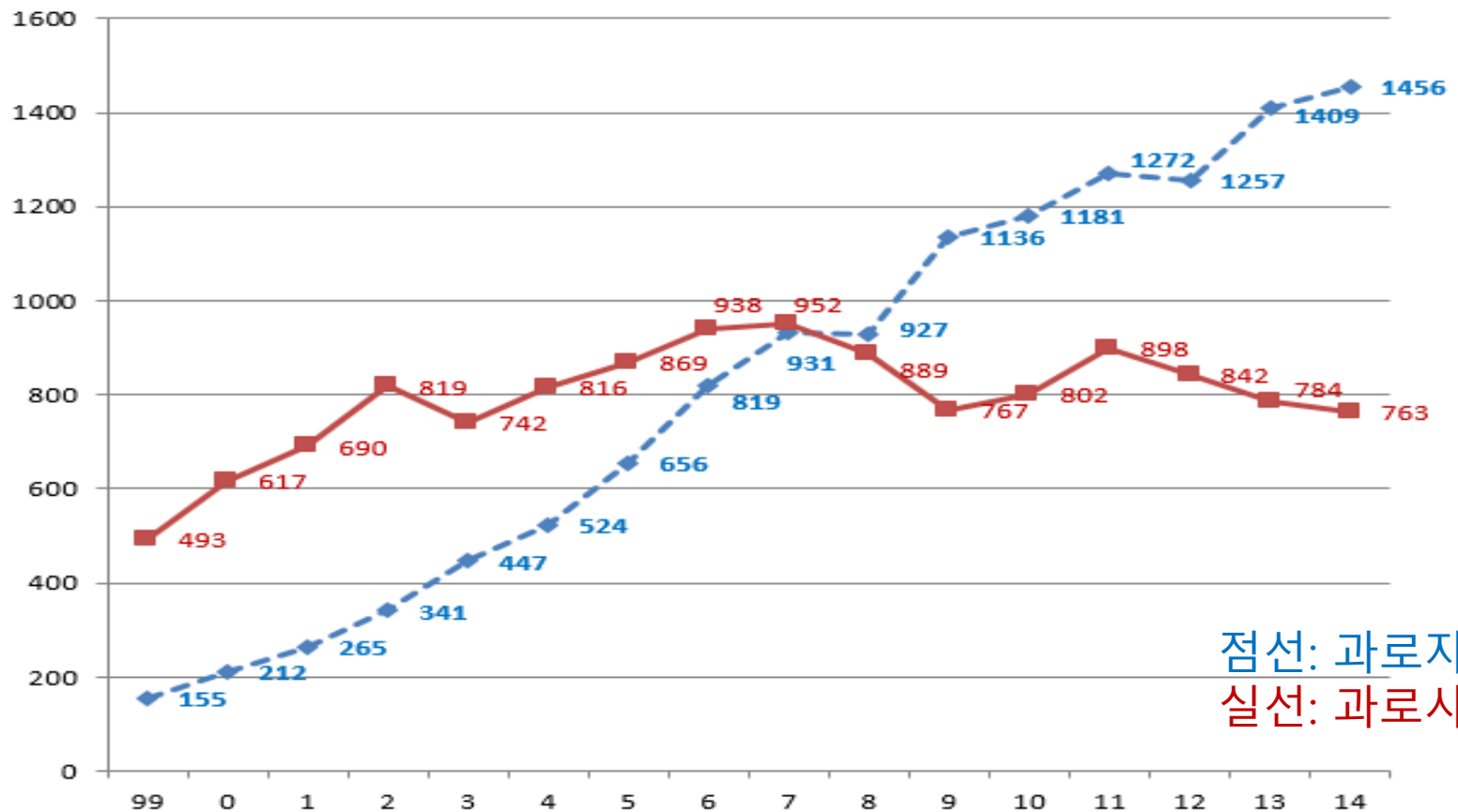
현재의 과로위험은 건강문제를 비롯해 관계 단절, 소외, 자살, 대형사고까지 가족과의 교감이나 자신에 대한 성찰, 공동체 참여 어렵게!

- ~ 과로위험·폭력에 무더진
- ~ **저인지** 상태
- ~ 우리 모두는 **시간마름병** 환자



# 전제: 과로사회, 과로위험의 실태

## #참조 과로사 및 과로자살: 일본의 경우



점선: 과로자살  
실선: 과로사

# 전제: 과로사회, 과로위험의 실태

#참조 과로사 및 과로자살: 한국의 경우

게임 개발자 및 IT노동자, 드라마 PD, 대기업 연구원,  
로펌 변호사, 지하철 기관사, 우편집배원, 마필관리사,  
사회복지 공무원, 소방공무원, 은행원, 증권노동자,  
제약 영업사원, 현장실습생, 이주노동자, 대학 교직원,  
서비스센터 기사, 항공사 승무원, 대기업 협력업체 직원

**잇따른 과로사·과로자살은 우연적 예외 아닌 우리네 과  
로사회의 단면**

## 관점1: 기술의 자본주의적 사용

“기계 그 자체는 노동시간을 단축시키지만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면 노동시간을 연장시킨다. 기계 그 자체는 노동을 경감시키지만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면 노동강도를 높인다. 기계 그 자체는 자연력에 대한 인간의 승리이지만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면 인간을 자연력의 노예로 만든다. 기계 그 자체는 생산자의 부를 증대시키지만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면 생산자를 빈민으로 만든다.”

~ 기계의 ‘**자본주의적**’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

## 관점2: 건수 중심적인 노동 패턴

“전통 사회에서는 작업이 자연 리듬에 맞춰 진행되었다. 정해진 작업 그 자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했지 작업을 언제까지 얼마 이상을 마무리해야 하는가는 그렇게 큰 변수는 아니었다.” E.P. 톰슨은 이를 ‘업무’ 중심적인(task oriented) 노동 패턴이라고 불렀다.

“그러던 것이 산업화 이후 시간당 생산성이나 마감 시간처럼 시계 시간으로 특징지어지는 ‘시간’ 중심적인(time oriented) 노동 패턴으로 변화했다. 이것이 산업사회의 결정적인 특징이다.”

## 관점2: 건수 중심적인 노동 패턴

Task → Time → Case

work-nonwork는 한 덩어리의 시공간에서!, **DILIGENT**





## 관점2: 건수 중심적인 노동 패턴

Task → Time → Case

Work-nonwork의 **분리**, factory 내 nonwork를 제거, **INDUSTRIOUS**



산업화 초기,  
노동자를 공장으로 **불러들이는** 게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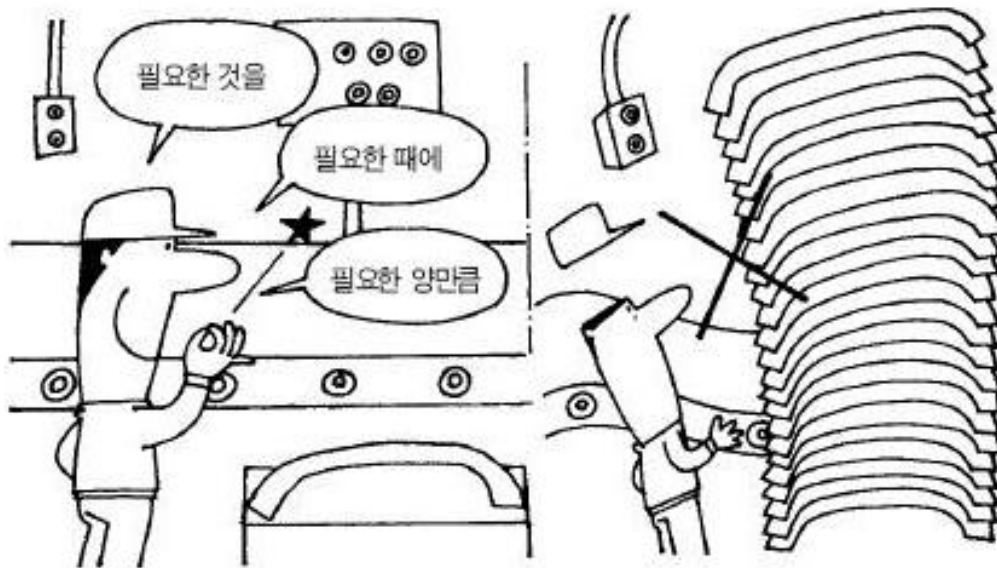
자동급식기는 느슨한 시간들을 제거,  
'근면' 주체를 주조하기 위한 장치 표상

길이-속도-강도를 최대화하는 방식의  
기술 활용

## 관점2: 건수 중심적인 노동 패턴

Task → Time → Case

Just-In-Time, factory 내 작업과정상의 낭비시간 제거, **FLEXIBLE**



## 관점2: 건수 중심적인 노동 패턴

Task → Time → Case

일은 특정한 시공간에 의존하지 않게! **NOMADIC & INDEPEND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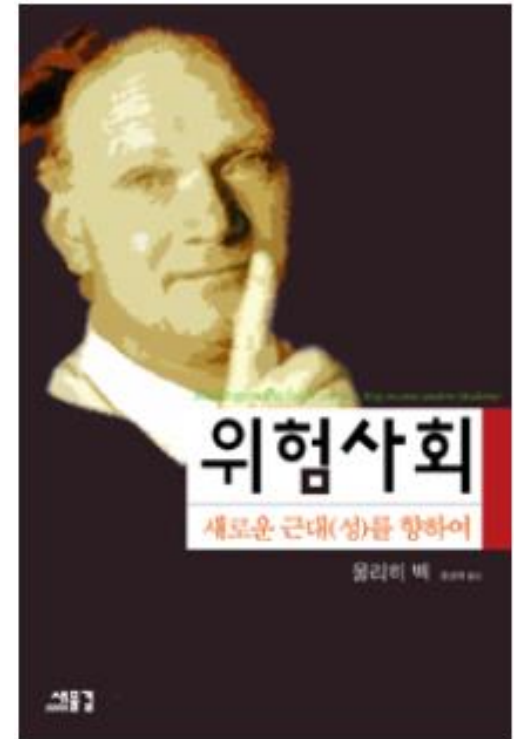


## 관점3: 브라질화의 디지털 버전

『위험사회』(울리히 벡, 2006, 새물결)

“노동 세계는 점차 브라질화되어 간다. 불연속적이며 조각조각난 노동들이 ... 침투하고 있다. 노동 세계에서는 불확실성만이 확실하게 됐다. 이제 노동자의 삶은 불안으로 이루어진 구름 속으로 내몰려 정상적인 개인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 서사적 삶은 더욱 힘겨워졌다.”

“일자리(career)의 시대는 끝나고 오로지 일거리들(jobs  gigs)로 채워진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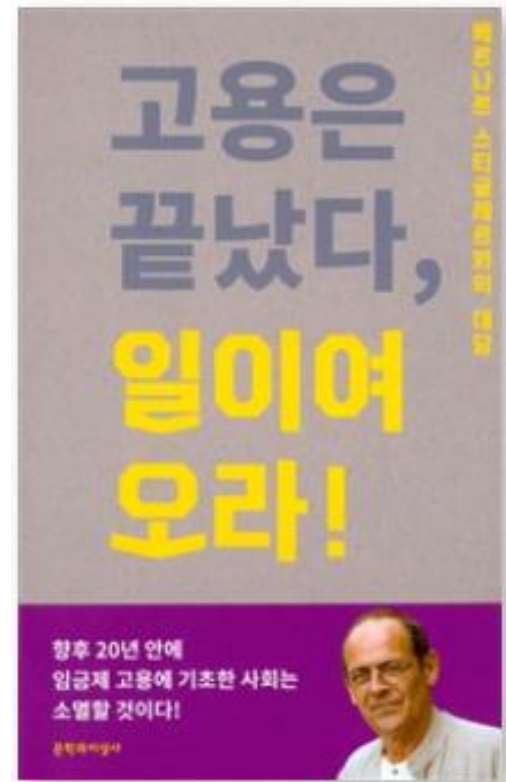


## 관점3: 브라질화의 디지털 버전

『고용은 끝났다, 일이어 오라』  
(베르나르 스티글러, 2018, 문학과지성사)

“고용이라는 노동 형태는 점점 실효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

“향후 20년 안에 임금제 고용 형태의 일 자리는 사라질 것이다”



## 관점3: 브라질화의 디지털 버전

### 『균열 일터』

(데이비드 와일, 2015, 황소자리)

기업이 핵심역량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들을 외부로 이전하면서 이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던 기업 시대는 끝났다”

“회사 테두리 안에 머물러 보호 보장 기능을 밖으로 이전한 형태의 조각조각 누더기가 된 고용관계들이 경제전반에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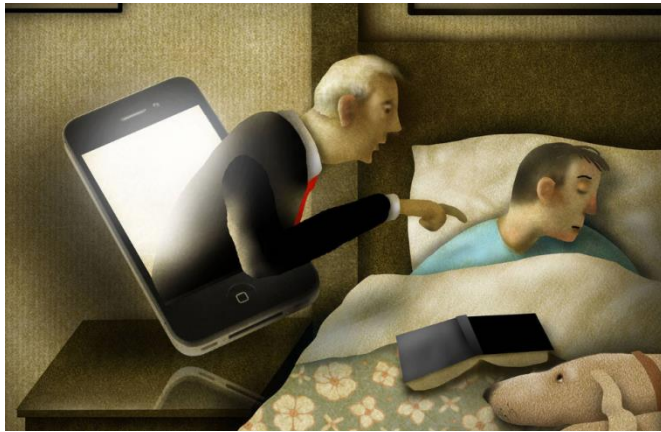
⇒ 노동인권의 침해, 사고재해의 외부효과, 분배 불평등의 심화



## 새로운 현상 ①: 업무의 일상 침투

노동과 비노동의 **경계가 모호해짐/흐려짐** (blurred)

메신저 감옥, SNS감옥, “항시 대기” 스트레스



모호해진 경계를 파고들어 착취가 일상으로 확대

## 새로운 현상 ①: 업무의 일상 침투

• '일터 밖=업무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하는 시대는 끝남

- 시간권리로서의 자유시간에 대한 침해
- 여가의 침식·파편화
- 워라밸의 불가능성

~ 한 톨의 일상 시간까지 쥐어짜지는 시대의 도래 (여가의 비극, 보드리야르)



## 새로운 현상 ①: 업무의 일상 침투

“그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거 아냐”, “간단한 거니 처리해줘”  
“허들 넘기에 급급하다”  
'새벽 불림'

시간권리의 부재를 틈 탄 착취의 변형이 더욱 기승을 부림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부담이 증가

- ~ 신기술의 사회적 사용 방식에 대해 고민해야
- ~ 노동문화 혁신이 뒷받침 되어야

## 새로운 현상 ②: 노동자의 탈노동자화

**사례:** '배달대행 앱 회사 소속으로 ...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고교생이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충돌해 척수가 손상됐다'(2013년 11월)

**판결:**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 새로운 현상 ②: 노동자의 탈노동자화

- ~ 새로운 형태의 노동은 기존 법제도의 '밖'에 놓이면서 ↑  
현실과 제도 간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
- 이중삼중의 불이익과 위험을 개별 노동자가 감수

# 새로운 현상 ②: 노동자의 탈노동자화

# 비용절감 전략의 디지털 버전: 초기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당신을 불편하게 했던 것들”

~ 자본은 더 이상 규율을 위한 비용을 들이려 하지 않는다

# 새로운 현상 ②: 노동자의 탈노동자화

# 비용절감 전략의 디지털 버전: 현재

## 배달대행 업체가 홍보하는 배달대행 이용시 장점

1. 사고 발생시에도 추가 비용(오토바이 수리비, 직원 보험료 등) 없이 업주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다.
2. 직원의 잦은 지각, 무단 결근, 기타 속썩임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수수료만 지급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것이 적다”
3. 부족한 배달직원 모집 압박감에서 해방된다.
4.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주문을 처리할 수 있다.
5. 배달직원 사고 위험 부담에서 해방돼 심리적으로 안정된다.

~ 자본은 시간~임금 간의 연결고리를 더욱 해체하려 한다  
노동자성의 제거 ~ 사용자의 책임 회피

## 새로운 현상 ②: 노동자의 탈노동자화

### 독특한 노동의 세계

연속적 길이로서의 '노동일' 무의미, 단시간성으로 채워짐

지시종속성, '챔질' 스트레스 여전

### 부품화의 심화 & 위험의 개인화

비장소적 마주침은 확대 ~ 관계는 축소 (호텔투숙객 마인드)

시간 투쟁의 토대가 됐던 연대의 언어들 또한 축소

디지털 노동자로서의 존재론적 고민: 호부호형의 **대상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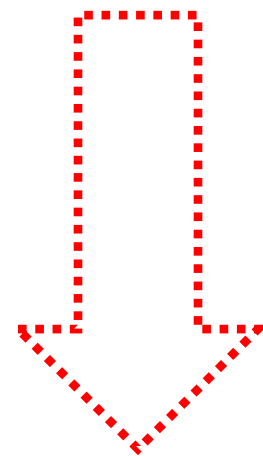
## 새로운 현상 ③: 소작농화

국내에서 통용되는 룰은 7대 3 법칙이다. 어떤 게임으로 100만원의 이익이 났을 때 30만원은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올레게임 등이 가져간다. 남은 70만원 중에서도 다시 7대 3 원칙이 적용된다. '애니팡' 등 카카오톡 기반 게임의 경우 브랜드 사용료 개념으로 다시 70만원 중 30%(21만원)를 가져간다. 총수익의 절반도 안 되는 49만원으로 다시 퍼블리싱 업체와 실제 개발자들이 분배한다. 개발과정에 외주나 하청 형식으로 참여한 업체들도 이 '49만원' 안에서 지분을 갖는다.

한국 시장 자체가 거의 대규모 몇 개의 게임이 독과점하는 형태다 보니까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대기업만 유리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소규모 개발사들은 오히려 다양한 시도를 하기에는 **너무 가난해진 상황**이 온 게 아닌가

## 새로운 현상 ③: 소작농화

플랫폼을 매개로 자본은 생산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도 **✓**  
 배타적 통제, 유통 또는 브랜드를 통해 막대한 지대를 수취



시장 매출 증가해도 실질임금은 감소 ~ 열악한 노동조건을 재생산  
 ~ 문화산업(에서 두드러지는) 노동자들의 공통 문제





## 시간권리를 위한 과제들: 오래된 과로위험에 대하여

넓은 제도의 방치 ~ 과로를 방치하는 제도 근절

제도와 현실의 간극이 큼 ~ 간극의 최소화

시간의 양극화 ~ 보편을 지향하는 시간 분배

하루 노동시간의 규제 없음 ~ 하루 노동시간 규정

시간권리 교육의 부재 ~ 시민 교육으로서의 시간권리 강화



## 시간권리를 위한 과제들: 새로운 과로위험에 대하여

새로운 시간권리 제안 : 연결되지 않을 권리, 휴식권 등

노동권은 물론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발생 ~ 임노동자 중심  
을 고용 모델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

지대 수취를 제한하는 장치 마련 ~ 불공정거래 관행을 적극  
제한해 소득·시간 분배를 확대

기술 혁신에 부합하는 노동문화 4.0 정착이 병행되어야



한국여가문화학회 3월 콜로키움

2018.3.20.화 18:30

고려대학교, 구법학관 B104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ulmin@daum.net